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 지배권 상실

채권단, 최대주주 주식 100대1 감자 ... 지분 2.6% 불과 소액주주 전략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대주주 주식을 100대 1로 줄이는 감자를 단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의 현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47.31%)의 보유 지분은 2%대로 낮아지고 출자전환을 통해 채권을 주식으로 바꾸는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의 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금호타이어에 대해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채권단은 4월30일까지 채권금융기업들을 상대로 감자 방안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채권 신고액 기준으로 전체 채권단의 75%의 동의를 얻으면 금호타이어 정상화 계획은 확정되며, 5월 중순 이전까지 정상화 계획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화 계획에는 총 5800억원의 출자전환과 주주별 차등감자, 6000억원의 신규자금 투입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금호석유화학 등 현 금호타이어의 대주주에 대해서는 100주를 1주로 줄이는 대규모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금호석유화학의 보유 지분은 2.6%(33만1000여주)로 낮아질 전망이다.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3주를 1주로 줄이는 감자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총 상장주식수는 1262만여주로 줄어든다.

채권단은 박삼구 명예회장에게 금호타이어 경영을 맡기는 한편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감자 방안을 포함한 정상화 계획은 금호타이어의 이사회와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30>